[동향 보고]

일본 경제 동향 (2014.1월)

< 목 차 >

Ⅰ. 일본 경제 지표 ····· 1

Ⅱ.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2
1. 선순환국면 진입 ····· 2
2. 수출의 회복세에도 무역적자 지속 ····· 7
3. 엔저하에서 주가·금리는 일진일퇴 ····· 10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 증가 ····· 12

Ⅲ. 일본의 주요정책 ····· 13
1. TPP 교섭 ····· 13
2. 성장전략 실행계획 ····· 14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6
1. 원고·엔저로 무역의 축소균형 지향 ····· 16
2. 기저효과에 의한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 19
3. 일본인 입국자 수 감소 ····· 20

Ⅴ. 참고 자료 ·····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 21
2. 일본 경단련 신임회장 선임 ····· 23
3. 일본의 주요경제 일정 ····· 25

Ⅰ. 일본 경제 지표

< 일본경제 주요지표 >

구 분	2012	2013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GDP증가율(%)	1.4	4.1			3.8			1.1(P)			-		
광공업생산(%)	0.6	1.3			1.0			0.1			-		
민간소비(%)	2.0	1.0			0.7			0.2			-		
소비자물가(%)	-0.1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0.0	0.0
실업율(%)	4.3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4.0	3.7
수출(조엔)	63.7	16.4			17.7			17.8			6.1	5.9	6.1
수입(조엔)	70.7	19.1			19.7			20.6			7.2	7.2	7.4
무역수지(조엔)	-8.4	-2.7			-2.0			-2.8			-1.1	-1.3	-1.3
경상수지(조엔)	4.8	0.8			0.6			-0.1			-0.06	-0.05	-
해외투자(조엔)	9.8	0.8	0.4	0.9	1.5	0.9	0.9	3.7	0.5	0.5	0.9	0.5	-
환율 달러	80.1	92.42			98.8			98.9			97.9	100	103.5
환율 원화(100엔)	1,413	1,175			1,138			1,139			1,090	1,064	1,022
금리(10년물)	0.78	0.73			0.72			0.77			0.63	0.61	0.67
주가(닛케이)	9,612	11,458			13,629			14,128			14,329	14,932	15,655

주 : 증가율은 전기비, (P)는 2차 속보치
자료 : 일본 내각부, 재무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소비 및 설비투자 중심으로 내수 호조로 회복세

○ '13.1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 100)가 110.7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생산과 고용 등의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를 유지

□ (**물가**)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 유지

○ '13.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

□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적자, 연간으로는 과거최대 적자 기록

○ '13.12월 무역수지는 1.3조 엔 적자

* '13년 11.5조 엔 적자로 과거 최대 적자폭

□ (**환율**) 엔화 약세 지속

○ '13.1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3.5% 하락

* '13.12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전월대비 4% 하락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선순환 국면 진입

□ (종 합)

○ 최근 일본경제는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을 금년 4월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이어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일본경제가 기업수익 증가→ 임금상승, 고용·투자 확대→ 소비와 투자증가 → 기업수익의 확대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율이 잠재성장율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

□ (전 망)

○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긴급경제대책 등 각종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계소득과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신흥국 등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환경의 불안요인 등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적 영향과 함께 향후 경기회복세 유지에 대한 우려요소

□ (시사점)

○ 중장기적으로는 TPP를 중심으로 한 FTA정책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성장전략의 성공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시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한일경제관계는 무역, 투자 등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2014년에는 원·엔 환율의 향방, 한일의 경기 동향 외에도, 한일 민·관의 대응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

○ 2013년 3분기 실질GDP성장율(2차 속보치)은 전기 대비 0.3%, 연율 환산으로는 1.1%를 기록

- 전기의 연율 3.8%에 비하면 성장률이 떨어졌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1	2012	2012		2013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실질GDP	-0.5	1.4	-0.8	0.1	1.1	0.9	0.3	-
(전기비연율)			(-3.2)	(0.6)	(4.5)	(3.6)	(1.1)	-
(전년동기비)			(-0.2)	(-0.3)	(0.1)	(1.2)	(2.4)	-

자료: 일본 내각부

○ 3분기 GDP성장은 경제대책과 소비세 증세 등 정책의 효과가 컸음

- 실질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국내수요가 0.9%포인트로 크게 기여한 반면, 외수(수출-수입)는 -0.5%포인트로 3분기 만에 GDP성장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2013년 2월에 발표된 긴급경제대책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투자가 6.5% 증가로 전분기에 비하여 증가율을 높인 외에, 주택투자도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으로 2.7% 증가

○ 2013년도 일본경제는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 효과로 2.6%의 고성장이 예상

- 2014년도 경제성장율에 대해 일본정부는 1.4%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싱크탱크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부진을 들어 0.7-0.8%의 저성장을 예상

< 2014년도 실질GDP성장율 전망 (%) >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
일본정부	IMF	일본정부	민간 싱크탱크		IMF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2.6	1.7	1.4	0.7	0.8	1.7

주: 민간경제연구소는 15개 연구기관 평균, 이코노미스트는 41명의 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사, 내각부, 일본의 민간경제연구기관 발표자료

□ (**산업생산 · 투자**) 완만한 증가로 회복

○ '13.1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가 110.7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2008년 7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생산과 투자, 고용 등의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를 유지

○ 광공업생산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내수활성화, 수출환경 개선을 배경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와 산업용기계는 회복 내지는 증가 경향인 반면, 전자부품은 횡보상태를 지속

○ 설비투자는 엔저 및 기억수익 개선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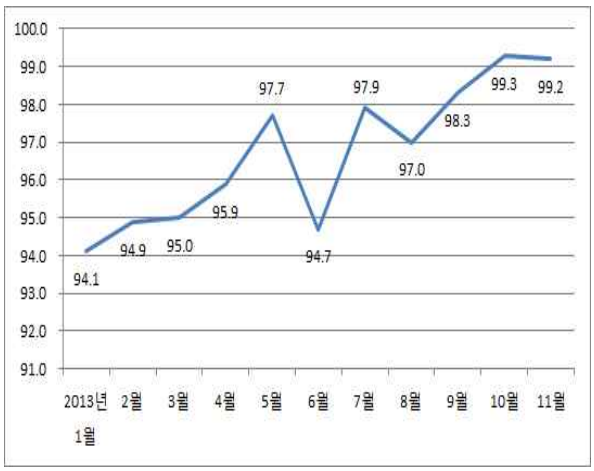
- '13.11월중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통계를 보면, 전년비 17%가까이 증가, 경기회복이 투자에까지 파급되고 있음이 확인

○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설비투자 환경면에서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법인기업통계상 매출액경상이익율을 보면, 전 산업 기준으로 2분기에 대폭 개선된 후, 3분기에도 높은 수준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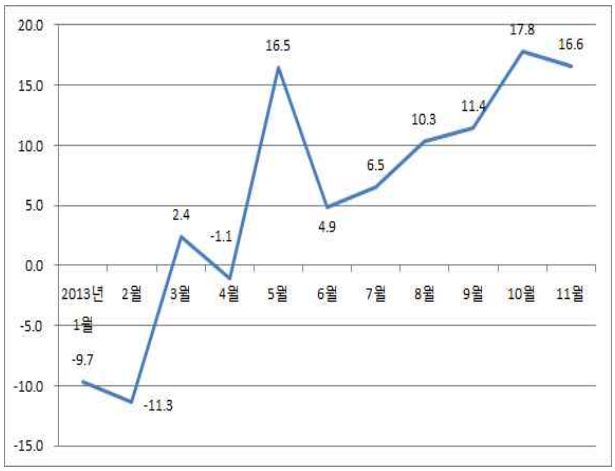
○ 향후에도 엔저와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이 지속되면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3년 광공업생산 월별 추이 (2005년=100, %) **>**



자료: 경제산업성

< 2013년 기계수주액 월별 추이 (%) **>**



자료: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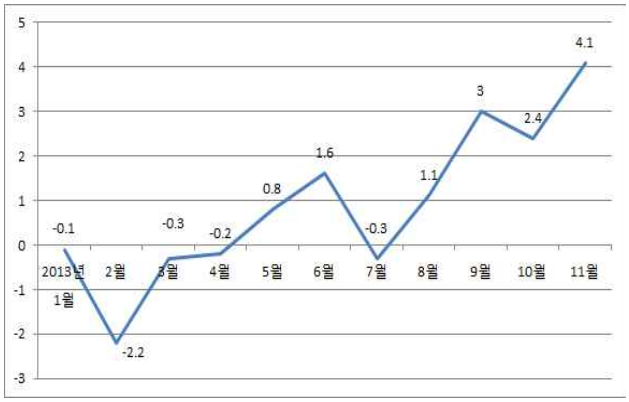
□ (**소 비**) 견조세 유지

○ 고용 및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비는 견조세를 유지

- 소매판매액이 11월에 전기대비 4.1%로 월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일부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도 멈추지 않고 있음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그 반동에 의한 일시적인 감소를 동반하면서도, 기조적으로는 고용 및 소득환경의 개선으로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소매판매액 월별 추이 (%) **>**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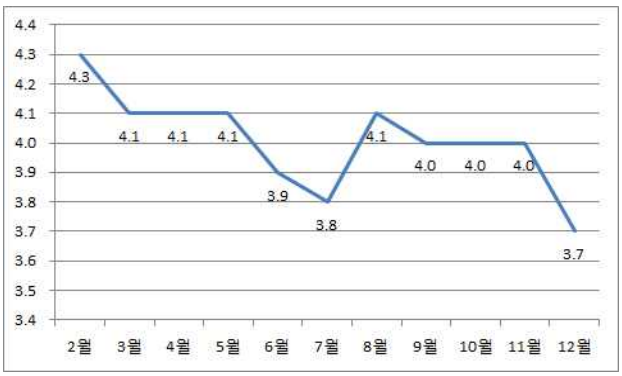
□ (**고 용**)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도 견조세 유지

○ '13.12월 실업율은 전월대비 0.3P감소한 3.7%로 3개월만에 개선

- 13년 연간 실업율은 4.0%로 전년 대비 0.3%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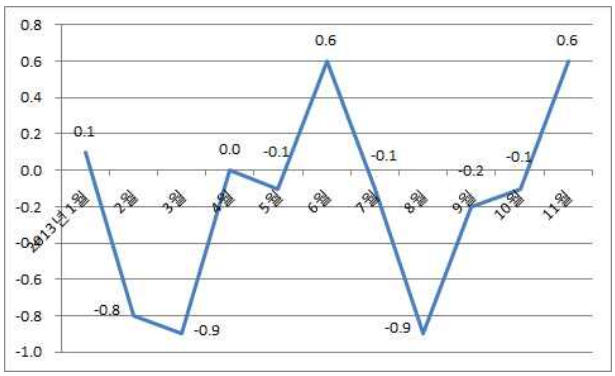
○ 소비의 중요한 영향변수인 임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전반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현금급여 총액도 견조세

< 2013년 실업율 월별 추이 (%) **>**



자료: 후생노동성

< 2013년 현금 급여 추이 (전년동기, %) **>**



자료: 후생노동성

□ (**물 가**) '13.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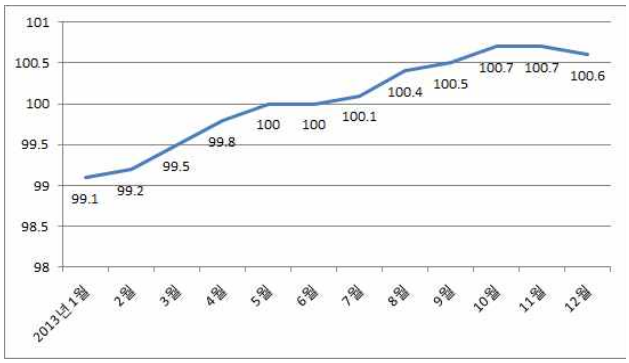
○ ‘13년 연간평균은 100.1로 전년대비 0.4% 상승

-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은 엔저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에 의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상승에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움직임이 확산

○ 예상물가상승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예상물가상승율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인상을 가계가 받아들일 여건이 정비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

< 2013년 소비자물가 추이 (2010년=100,%) **>**



자료: 총무성

2. 수출 회복에도 무역적자 지속

□ (**종 합**) 2013년 무역적자는 11조 4,745억 엔으로 과거 최대

○ 2013년 일본의 무역적자는 엔저와 원전중단으로 인한 연료수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1979년 이후 최대적자폭 기록

- 수출액은 69조 7,877억 엔이고 엔저로 3년 만에 증가,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지만 수출물량은 1.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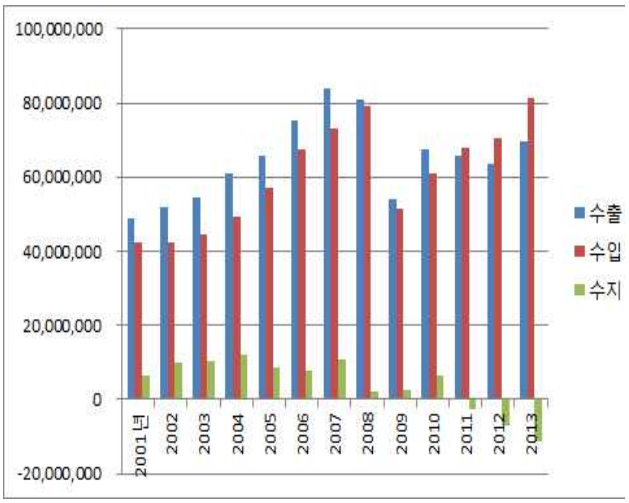
- 수입은 4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도 과거 최대의 81조 2,622억 엔으로 작년 대비 15.0% 증가

○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전년대비 21.8%의 엔저·달러고가 진행된 것으로 엔화 환산 수입액이 증가

○ 일본 무역의 수출 구조는 해외생산이 증가한 '전기기기'에서 '자동차' 수출에 대한 의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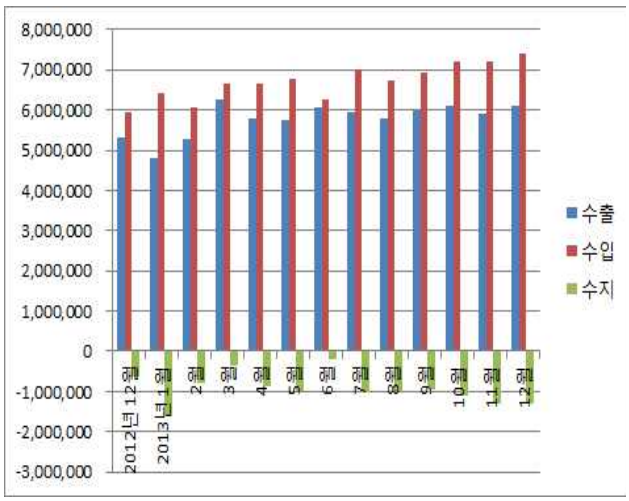
- 오사카세관이 발표에 따르면 긴키지방(오사카, 교토, 시가, 나라, 효고, 와카야마)의 '13년 무역수지는 6,104억 엔 적자로 '7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

< 연도별 일본의 무역 추이 (100만엔) **>**



자료: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월별 무역 추이 (100만엔) **>**



자료: 재무성

□ (수 출)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69조 7,876억 엔으로 3년 만에 증가

○ '13년 12월 월간으로는 6조 1000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

-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물량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J커브효과에 의해 그 속도는 완만한 편으로 전년보다 1.5% 감소

○ 수출 증가 주요 품목은 자동차(12.9%), 유기화학물(38.8%), 광물성연료(49.9%) 등

○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15.6% 증가한 12조 9310억엔으로 2년 연속 증가, 5년 만에 대중 수출액을 상회

- '13년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대비 42.3% 증가한 5조 215억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하였고, 대중 수출은 유기화학물,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

- 대EU 수출은 '13년 수출이 7조 7억 엔으로 2년 만에 증가(증가율 7.7%)하였고,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 원동기의 수출이 증가

< 2013년 일본의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품목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9,074	18.3	104,150	12.9
2	철강	3,371	19.4	37,933	8.5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88	6.1	35,526	6.4
4	자동차부품	3,086	17.3	34,762	8.5
5	유기화합물	2,204	30.1	25,236	38.8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국가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12,165	34.4	126,287	9.7
2	미국	11,301	13	129,310	15.6
3	ASEAN	9,047	5.2	108,297	4.9
4	EU	6,723	23	70,007	7.7
5	한국	4,592	5.6	55,153	12.2
6	대만	3,745	14.4	40,611	10.6

자료: 일본 재무성

□ (**수 입**)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81조 2,600억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대

○ '13년 12월 월간으로는 7조 4,000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

○ 주요 수입 품목은 스마트폰부품 제조용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원전 중단에 따른 원유(16.3%), 액화천연가스(17.5%) 등의 수입 증가와 엔저 진행으로 엔화 표시 수입이 크게 증가

○ 지역별로는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7조 6,500억 엔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여 과거 최대

- 대중 수입 증가 품목은 통신기기(37.0%), 의류(17.2), 전산기류(21.7%) 등

- 대EU 수입은 7조 6,494억 엔으로 4년 연속 증가(15.2%)하였고, 품목은 의약품과 자동차가 증가

< 2013년 일본의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품목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14,187	23.1	142,408	16.3
2	액화천연가스	6,895	33.1	70,568	17.5
3	의류 및 동 부속품	2,476	14.8	32,457	21.1
4	석유제품	2,710	6.5	27,124	10.2
5	통신기	2,220	35.6	26,777	24.6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국가별 수입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국가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16,001	29.2	176,502	17.4
2	ASEAN	10,279	17.3	114,864	11.5
3	EU	6,970	33.2	76,494	15.2
4	미국	5,385	12.1	68,113	122
5	호주	4,504	26.6	49,769	10.5
8	한국	3,213	13.4	34,966	8.1

자료: 일본 재무성

3. 엔저하에서 주가·금리는 일진일퇴

□ (주 가)

○ 주가는 미국의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엔저와 맞물려 상승한 후, 엔고 반전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 현재 15,000엔대 후반에서 추이

□ (금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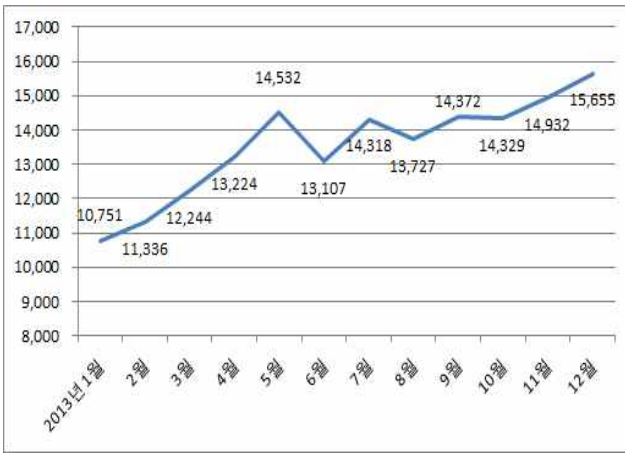
○ 장기금리는 장기국채의 유통이회율이(10년물) 일본의 주가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등을 배경으로 소폭 상승한 후, 일본의 주가하락에 따라 저하, 0.6%대 후반에서 추이

- 단기금리는 무담보콜레이트가 0.1%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추이

□ (통화량)

○ 통화량(머니터리베이스(평잔))은 일본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크게 증가, 전년대비 40%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

< 2013년 일본의 주가 추이 (닛케이평균, 엔) >



자료: 일본경제신문

< 2013년 일본의 장기금리 추이 (%) >

자료: 일본상호증권

□ (환 율)

○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경제지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주가의 상승과 맞물려 엔저·달러고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나,

- 최근 미국의 고용 부진 영향으로 엔고·달러저 방향으로 반전되어 현재 104엔대에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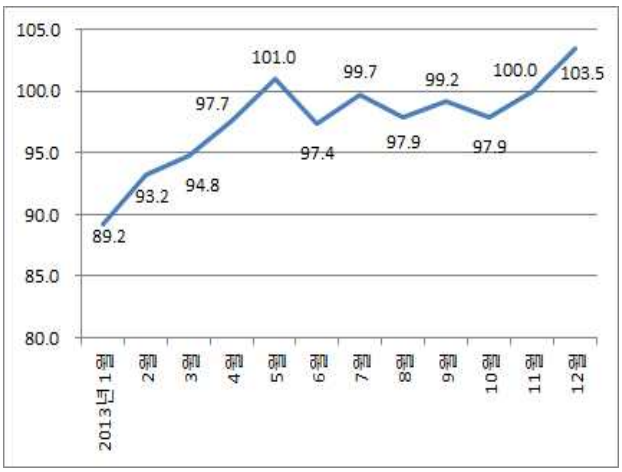
○ 엔화의 환율에 대해서는 민간연구기관들이 미달러당 100엔~106엔의 엔저가속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2014년 봄 이후 미·일간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 2013년 12월까지 18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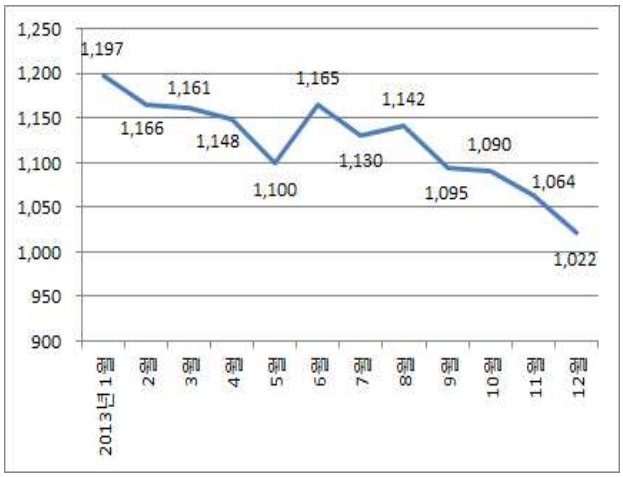
○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12월 평균으로 100엔당 1,022원으로 2012년 12월 1,288엔에 비해 26% 약세

< 2013년 엔/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



자료: 일본은행

< 2013년 원/엔 환율 (엔=100원) **>**



자료: 한국은행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 증가

□ (동 향) 엔저에도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1월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했으나, 2013년 1~11월 누계로는 114,583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1-11월 누계기준으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각각 59.3% 및 3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0.6%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중일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대중국 투자의 감소(2013.1-11월 기간 중 전년비 15.9% 감소),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비제조업의 투자의 활발 등이 주요 요인

-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비중이 84.1%로 제조업의 15.9%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특히 통신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3.1-11월) **>**

	2013.11월		2013.(1-11월)	
	금액(백억엔)	증감율(%)	금액(백억엔)	증감율(%)
대세계	**46.3**	**-10.0**	**1145.8**	**33.3**
아시아	31.7	43.8	309.0	10.6
북 미	3.8	-65.8	414.4	59.3
중남미	0.9	-86.8	88.7	18.0
유 럽	7.6	13.1	279.4	37.5
대양주	1.7	67.0	61.4	-32.5

*주: 국제수지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 (특 징)

○ 엔저 하에서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과 해외직접투자간 상관관계, 즉 엔고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엔저는 해외직접투자를 수출로 대체시키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직접투자의 누적으로 현지에서 산업·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직접투자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엔저로 무역코스트가 저하되더라도 현지 수요증가에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임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TPP 교섭

□ (배 경)

○ 일본 통상정책의 최대 초점인 TPP가 2013년 중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간 대립이 해소되지 못함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에 강하게 반발, 2월중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

□ (주요 내용)

○ 2014년 중 일본은 TPP를 비롯하여 최대 5개 협정 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2014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TPP외에 호주, 몽골, 콜롬비아 등과의 2국간 FTA, 한중일 3국간 FTA도 2014년말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와의 FTA 교섭은 4월 정상회담에서 가속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한중일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PP교섭에서 일본은 쌀과 설탕 등 5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한편,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 한층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교섭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하는 4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 미일 정상회담에서 제시되는 수준이 TPP의 자유화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 일본의 교섭내용에 주목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과의 관세철폐, 무역규범의 정비 등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아베정부의 성장전략 실행력을 다시한번 시험하게 될 것임

- 특히, 일본이 주도하여 TPP교섭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일본의 통상전략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지적

□ (**시사점**)

○ 일본의 TPP정책은 한국과 중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TPP교섭이 마무리되면 현시점에서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쳐 한중일 FTA교섭에 전향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역으로 TPP 교섭이 표류하게 되면, 한중일 교섭도 같이 제자리걸음할 위험이 있다고 시각이 병존

○ 한국으로는 일본이 TPP정책을 한중일FTA나 한일FTA의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2. 성장전략 실행계획

○ 「2014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와 「성장전략 실행계획」이 1월 24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

□ (**배 경**)

○ 최근 일본경제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일본부흥전략의 실행을 가속·강화

○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목표

□ (**주요내용**)

○ 산업경쟁력강화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적극적 활용과 정책자원의 중점배분을 통해 일본부흥전략의 3가지 액션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1월 24일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담당부서 등을 정한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각의에서 결정
- 의료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판 NIH(미국국립보건연구소) 설립 법안, 육아휴직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33개 법안 성립을 목표

- 실행계획 외에, 2014년 6월 예정인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검토방침도 결정
  · 고용, 전문인력, 의료, 간병, 농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의 저항으로 작년 성장전략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테마들을 정할 방침
  ·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법인세 납부기업을 늘리는 과세대상범위 확대를 명기하고, 전업주부를 우대하는 배우자공제제도를 재검토, 여성취업촉진책을 중핵으로 설정
  · 다수의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창설 등을 논의
  ·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의 개혁도 검토

○ 경제 선순환 실현

- 정부, 경영자, 노동자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상호 연대함으로써, 기업수익 증가를 임금상승, 고용·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하고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하여 기업수익의 확대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실현

○ 소비세율 인상 대책

-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그 반동에 의한 소비감소를 완화하고,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력의 기반강화와 선순환 실현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대책 패키지를 착실히 실행

○ 재정안정

- 기초적 재정수지서는 2015년까지 2010년도 대비 GDP대비 적자비율을 반감, 2020년도까지 흑자화 목표
-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은 사회보장을 비롯한 의무적경비 등을 포함, 성역 없이 재검토를 한 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

□ (시사점)

○ 최근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2개의 화살인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에 의해 회복된 경기를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강화화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향후 아베노믹스의 중심축이 성장전략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

○ 문제는 성장전략의 핵심인 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인데, 앞으로 기득권자의 반발(암반 규제개혁), 재정적자 축소와 상충(법인세 인하)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원고 · 엔저로 무역의 축소균형 지향

□ (**종 합**) 12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6% 감소한 27억 달러, 대일수입은 7.8% 감소한 48억 달러로 대일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 기록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억달러, %) >

구 분	2012	2013	12.12월	13.12월
對日 수출	388 (-2.2)	347(-10.6)	31	27(-12.6)
對日 수입	644 (-5.8)	600 (-6.7)	52	48(-7.8)
무역 수지	-256	-253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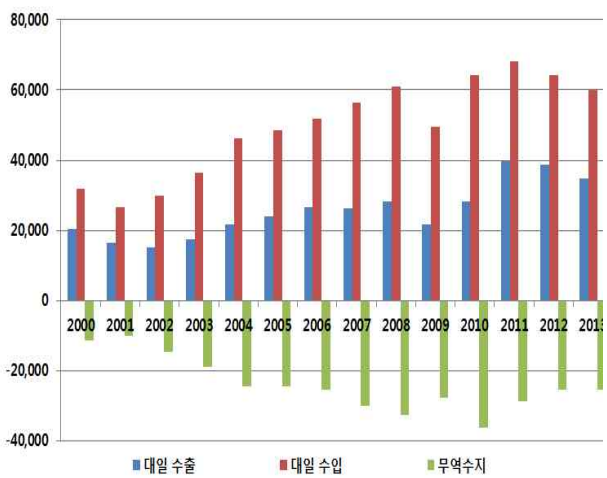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 ** ( )는 증감율

○ 2013년 연간 대일 수출이 전년대비 10.6% 감소한 347억 달러, 대일수입은 6.8% 감소한 600억 달러로 대일 무역수지는 253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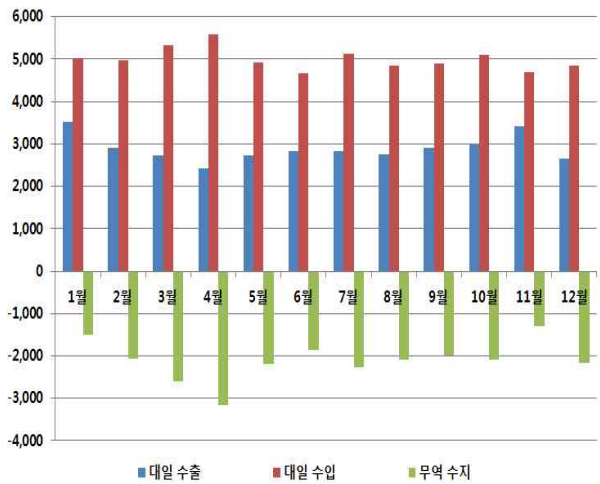
○ 원고·엔저로 인해 對日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여 2013년에는 대일무역액이 947억 달러로 3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하회

- 2013년 대일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축소 균형지향형의 성격을 띄고 있음

<연도별 대일수출입 실적 (백만달러) >



< 2013년 월별 대일수출입 실적 (백만달러) >



□ (대일 수출)

○ '13년 12월 대일 수출증가율은 -12.6%(전년 동월대비), 7%의 총수출증가율과는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어 한국 상품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

- 2013년 연간 대일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총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수입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2013년 12월	-12.6	7.0%	18.4%
2013년 년간*	-10.6	2.1%	8.9%

* 일본은 2013.1월-11월

○ '13년 12월 월간으로 대일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증가율 순위로 보면, 수송기계(30.0%), 철강제품(16.1%), 농산물(9.3%), 정밀화학제품(6.4%)기계요소공구 및 금형(3.7%) 등 5개 품목

- 대일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금속광물(-34.6%), 광물성연료(-34.1%), 산업용전자제품(-22.1%), 전자부품(-18.4%), 석유화학제품(-10.4)

○ 2013년 연간으로는 모든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산업용전자제품(-25.3%)과 전자제품(-20.1%)이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대일 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코드(MTI)	품목명	2012		2013		2013.1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8,796	-2.2	34,694	-10.6	2,664	-12.6
1	13	광물성연료	8,655	-0.2	8,519	-1.6	544	-34.1
2	61	철강제품	4,619	-10.2	3,689	-20.1	363	16.1
3	81	산업용전자제품	4,365	16.1	3,261	-25.3	246	-22.1
4	83	전자부품	3,222	-18.0	2,826	-12.3	206	-18.4
5	21	석유화학제품	1,908	4.4	1,788	-6.3	121	-10.4
6	22	정밀화학제품	1,562	-7.7	1,474	-5.6	131	6.9
7	11	금속광물	1,508	-26.4	1,300	-13.7	78	-34.6
8	74	수송기계	1,442	34.9	1,162	-19.4	101	30.0
9	01	농산물	1,195	3.1	1,072	-10.3	104	9.3
10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068	3.2	975	-8.7	81	3.7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입)

○ '13년 12월중 대일 수입을 총수입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데 비하여 대일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연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입증가율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수입에 비해 대일 수입의 감소폭이 더욱 큼

- 엔저·원고하에서도 대일수출의 감소폭이 총수출에 비해 큰 것은 국내 경기침체 외에 국산대체나 수입선다변화가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2013년 12월	-7.8	3.0
2013년 년간	-6.8	-0.8

○ '13년 12월 월간으로 대일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증가율 순위로 보면, 산업용전자제품(13.9%), 산업기계(13.1%), 전자부품(4.7%), 석유화학제품(1.8%) 등 4개 품목

- 대일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26.8%), 정밀기계(-20.0%), 기초산업기계(-17.0%), 정밀화학제품(-11.0%), 수송기계(-11.0%), 철강제품(-10.5%)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3년 연간으로는 석유화학제품(20.4%), 기초산업기계(8.1%), 전자부품(5.3%)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

<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코드 (MTI)	품목명	2012		2013		2013.1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64,363	-5.8	60,016	-6.7	4836	-7.8
1	61	철강제품	10,481	-7.2	9,047	-13.7	681	-10.5
2	83	전자부품	6,979	1.5	7,346	5.3	655	4.7
3	21	석유화학제품	5,584	3.8	6,722	20.4	555	1.8
4	71	기초산업기계	4,461	11.8	4,820	8.1	351	-17.0
5	22	정밀화학제품	4,971	-2.2	4,491	-9.7	396	-11.5
6	31	플라스틱제품	3,932	-6.3	3,264	-17.0	242	-26.8
7	73	정밀기계	4,057	-21.5	2,837	-30.1	195	-20.0
8	81	산업용전자제품	3,077	-	2,813	-8.6	256	13.9
9	74	수송기계	2,645	-14.0	2,375	-10.2	204	-11.5
10	72	산업기계	2,585	-18.5	2,371	-8.3	185	13.1

자료: 한국무역통계

2. 기저효과에 의한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 (동 향) 투자 일순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

○ 전체 외국인투자중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2013년에 26.9억달러로 전년대비 40.8% 감소

- 2013년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0.7%를 크게 상회,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감소가 전체 외국인투자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셈임

○ 2013년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불, %)

2011년		2012년		2013년(1~12월)		증감율	1962~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2	2,289	564	4,542	447	2,690	-40.8	1,011	7,231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최근 투자사례)

○ 미쓰비시화학이 삼양사와 합작투자법인 설립('14.1.14)
○ JX홀딩스 4,800억 투자, 쇼와셀석유&다이요오일 5,000억 투자
○ 도레이 새만금산단에 '18년까지 3,000억 투자 예정

□ (시사점)

○ 2013년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

○ 2013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비경제적 요인도 투자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최근 일본의 대형투자 안건을 증가시킨데 이어, 앞으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3. 일본인 입국자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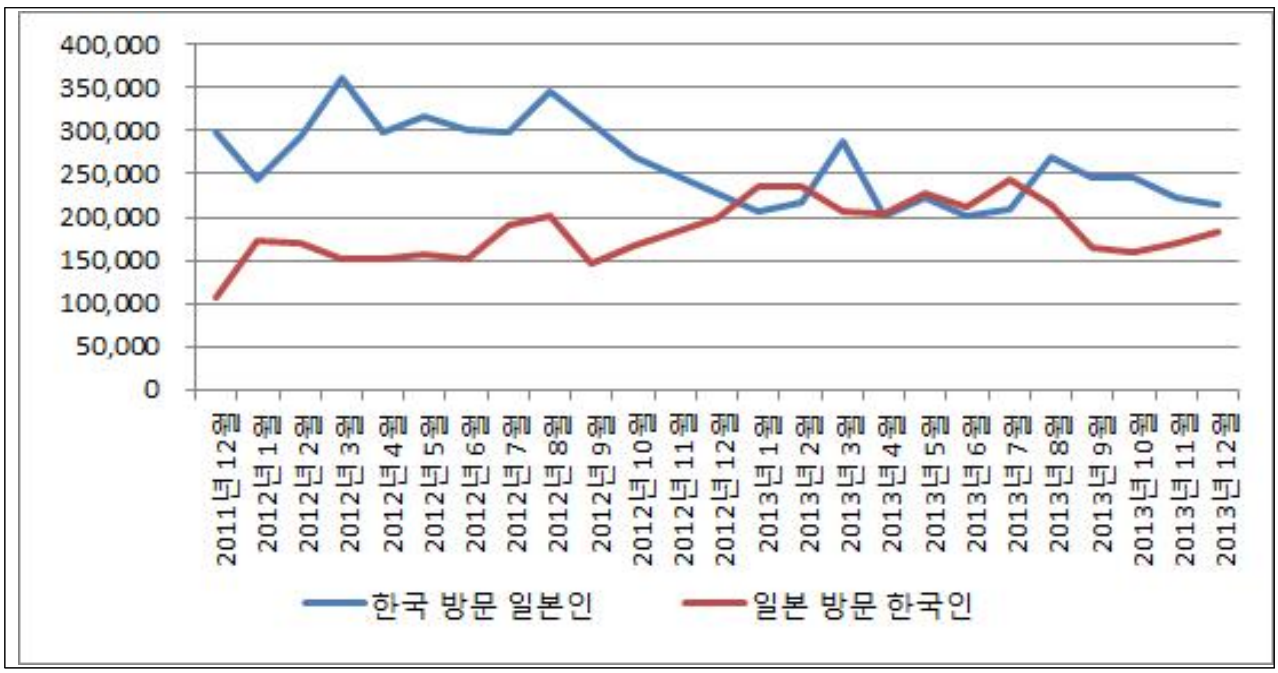
□ (**일본인 방한**) 한일관계 악화, 원저·엔고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275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 감소

○ 일본인 입국자는 한일관계의 악화, 엔저·원고의 영향으로 2012년 가을 이후 계속 감소

- 2013년 4월 이후 전년대비 30%가까이 감소하다가 8월 이후 감소폭이 둔화
- 2013년 12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 2013년 1~12월 누계로는 상반기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21.9% 감소
-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 방일**) 2013년 1-12월 기간 중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은 246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

< 한국인·일본인 상호 입국자 추이 ('11.12~'13.12,명)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Ⅴ.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13.12월~'14.1월)

□ 국내기관

○『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은행, 2014년 1월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FcountryView.action?boardBean.brdid=103382&boardBean.men

○『더뎌진 원고·엔저 영향 대비는 늦지 말아야』LG경제연구원, 2014년 1월 22일
http://www.lgeri.com/economy/finance/article.asp?grouping=01010300&seq=462

○『2014 일본의 주요 이슈』LG경제연구원, 2014년 1월 29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4&ctype=g&grouping_seq=

○『대일수출기업, '엔저 몸살' 앓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4년 1월 20일
http://www.kita.net/info/press/index.jsp?sCmd=VIEW&nPostIndex=208913

○『아베노믹스의 실시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KOTRA, 2013년 11월20일
http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한일FTA』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월1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
www.

○『GDP 4만달러 전략 일본의 선진화 경험』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월1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
globalwind

○『에너지 솔류션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일본기업』LG경제연구원, 2013년 11월 29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3&ctype=g&grouping_seq=01040200_470
ow
ion
g/

□ 일본기업

GW
/glo
bal/
○『2014년 세계경제와 일본의 대외통상 및 경제관계 전망(좌담회자료)』일본무역회, 2014년 1월24일
http://www.jftc.or.jp/shoshaeye/pdf/201401/201401_18.pdf
trade
/ inf
o/

○『제조업 부활의 과제와 현지화에 뒤늦은 일본』경제산업연구소, 2014년1월21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motohashi/14.html

○『한국의 경제정세와 일한관계 전망』세계평화연구소, 2014년 1월17일
http://www.iips.org/publications/2014/01/17173326.html

○『밸류체인코어 기업의 서포트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일본정책투자은행, 2014년 1월8일
http://www.dbj.jp/ja/topics/report/2013/files/0000014557_file3.pdf

○『월례경제보고(2014년 1월)』일본 내각부, 2013년1월17일
http://www5.cao.go.jp/keizai3/getsurei/2014/01shihyou/keizai-shihyou.html

2. 일본 경단련 차기 회장 선임

○ 경단련은 6월에 퇴임하는 요네쿠라 회장 후임으로 사카키바라 도레이 회장을 선임

- 사카키바라 회장은 경영자로써 평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 민간위원을 맡아 정부정책도 적극 참여

- 경단련은 정부와의 관계가 약화되어, 사카키바라 회장이 취임하게 되면 아베 정권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사카키바라 차기 회장은 6월 초 정기총회에서 취임 예정

○ 요네쿠라 회장은 차기 회장은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선임하겠다는 의향을 언급해 왔으며, 화학업종 출신인 사카키바라 회장을 선임

- 차기 경단련 회장으로 가와무라 히타치제작소 회장이 유력한 후보이었으나, 가와무라 회장이 경단련 부회장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회장 선임에 난항

- 경단련은 차기 회장을 현직 부회장 또는 심의원회의장 중에서 선임하는 관례를 깬 특별 인사라는 평가

  * 사카시바라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단련 부회장을 역임

○ 도레이는 과거 경단련 회장 출신 기업인 도시바, 도요타자동차에 비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회장들의 지지를 얻어,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 도레이 출신 경단련 회장은 최초

○ 사카키바라 회장은 한국에 우호적이고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14.1.15)

- 대형 안건 투자 :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체결('14.1.9), '18년까지 3천억원 투자

3.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1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	•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시행
	• 전기용품안전법 개정 시행
	• 특허청, 태국지적재산국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시
6	• 터키 수상 방일
	• 동경증권거래소 거래일 (JPX닛케이인덱스400 산출)
7	• 경제3단체장 기자회견
9~15	• 아베 총리,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14	• 아베 총리, 아프리카 정책연설(아프리카연합본부)
	• 경단련 차기회장 선임(사카키바라 도레이회장)
16	• 한중일 비즈니스교류 세미나(중국, 대련)
17	• 1월 월례회의 경제보고(내각부)
19	• 자민당전당대회개최
	• 경쟁력강화법 시행
20	• 산업경쟁력강화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21	• 성장전략 실행계획 각의 결정
21~23	• 아베 총리 스위스 방문(다보스 포럼 참석)
22	• 구로다 일은총재 기자회견
24	• 통상국회 소집(아베 총리 시정방침 연설, 6월22일까지)
25~27	• 아베 총리 인도 방문